
2022년 제20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5. 13. ~ 5. 1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 | | | |
|------|--------------|-----|-------|
| 프로그램 | 톡톡 사이다경제 | | |
| 방송일자 | 2022. 5. 13. | 시청률 | 0.000 |

【총 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온전한 손실 보상 방안’편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과 효과에 대해 심도 깊게 짚어 본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추계에 의한 59조 4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개했다. 첫 추경이라는 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천 등이 주요 관심사였던 만큼 관련 내용을 잘 정리했다. 이밖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는 법과 정책을 심도 깊게 조명하며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한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윤석열 정부 첫 추경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과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59조 4천억 원의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설명해주며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규모가 59조 4천억 원으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이 잘 거칠 것으로 전망해 세수추계에 의한 것이다. 국채추가 발행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 59조 4천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40%인 23조는 지방교부금으로 돌려야 하며,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36조원이다. 이 중 코로나19로 사업에 타격을 입은 370만 명의 국민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집행하며 예산규모는 26조 원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위한 고용·소득안정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규모가 큰 만큼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은 채무를 줄여서 금융시장에 금리를 낮추고 자금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36조 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과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면 그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아왔던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온전하고 완전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클릭K+’에서는 반려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정책을 전했다. 올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는 2m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동물을 방치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견을 입양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프로그램 | 국민리포트 | | |
|------|--------------|-----|-------|
| 방송일자 | 2022. 5. 13. | 시청률 | 0.030 |

【총 평】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시의성을 살린 “용산 시대가 열린다”를 비롯해 코로나19 거리두기에서 일상을 회복한 캠퍼스 축제와 5월 가정의 달 행사장의 활기 넘친 모습이 시선을 끌었다. 용산 역사박물관 전시물을 통해 용산의 유래, 철도 교통물류의 중심지, 일제병영과 미군 주둔지 등 역사의 명암을 조명하고 새로운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다. 또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3년 만에 대면 축제를 연 대학가의 활기찬 표정과 서울 장미축제 현장은 해방감을 만끽하는 일상을 그려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정의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호주 빅토리아주 어르신 교민 호잔치와 비접촉식 버스요금 자동결제 ‘태그리스페이앱’, 현대에 맞게 개량해 진화하는 국악기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다.

【구성 및 내용】

- 관심 끄는 '용산 역사박물관' 관람객 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지난 10일부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특히 용산공원과 박물관 등이 새로운 지역 명소가 떠오르며, 용산의 지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용산 역사박물관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3년 만의 대학 축제 '캠퍼스 낭만' 부활
서울의 한성대학교는 3년 만에 대학축제가 열리면서 다양한 주제의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 학번 학생들은 축제를 반기고 있고, 여러 대학교에서 대면 축제가 열려 학생들이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 '일상으로의 초대' 서울장미축제 재개
종량구 장미공원에서 오랜만에 2022년 서울 장미축제가 개최되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열렸던 장미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그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는데 거리두기 해제로 주최측은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 편리해진 버스 승하차 "교통 카드 찍지 말고 타세요."
경기도에서 교통카드를 대지 않아도 버스 요금이 결제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교통카드 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태그리스페이앱을 설치한 뒤, 선불 혹은 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1월 김포 공공버스부터 시작해 212개 노선 1,760대로 확대했다.
- 국악기 개량의 60년 발자취 돌아보다
1960년대 국악 관현악단이 창단되어 국악기 음역 개량이 시작되었다. 가야금, 대피리, 태평소 등 국악기의 음역이 확대되어 현대음악을 소화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국악의 끊임없는 진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국악 한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프로그램 |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 | |
|------|---------------|-----|-------|
| 방송일자 | 2022. 5. 14. | 시청률 | 0.010 |

【총 평】

‘한류 열풍의 중심 K-뷰티’편은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떠오른 K-뷰티를 집중 분석하고 그 영향이 화장품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부각시켰다. 지난 해 한국 화장품 수출이 급신장 추세를 보여 173개국에 9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 배경에는 한류 열풍이 있었다는 점을 소개해 한류 열풍이 산업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경제효과를 강조했다. 외국인들이 한국화장품에 열광하는 이유, 화장품 핫플레이스 탐방, 최근 트렌드와 화장 노하우에 대한 뷰티 꿀팁 정보를 제공해 국내외 여성 한류 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엽전을 사용해 한국의 퓨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방을 소개해 해외 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생생 K컬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K-뷰티 열풍, 유행의 이유, 수출금액 및 수출국가, 뷰티플레이 등에 대해 소개했다. 챔보의 V-로그는 조선시대 엽전으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기름떡볶이, 핫도그, 닭꼬치 등을 맛보았다.

유튜브, SNS 등에서 한국식 화장법이 유행하며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K-뷰티의 인기가 더해졌는데 이는 K-팝, K-드라마의 유행에 따른 한류스타의 영향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스타급 여배우인 손예진, 송혜교, 전지현 씨의 나이가 40대이고, 이영애, 고현정, 김혜수 씨는 5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녀들의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화장품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화장품에 관심이 증폭되고 수출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화장품 수출액이 무려 총 92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국 화장품을 수입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순이다. 2018년 147개국에서 2020년 173개국으로 매년 수출국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케어 관심, 한국 화장품의 친환경 성분 선호 등이며 베트남은 피부 트러블에 좋은 화장품을 선호하고 멕시코는 비건 제품, 브라질은 선크어 제품이 인기가 많다. 뷰티플레이는 오픈형 체험공간으로 다양한 한국 브랜드의 뷰티제품이 선보이며 체험을 할 수 있는 K-뷰티 대표 플랫폼이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에서는 엽전을 사용하는 재래시장을 보고 싶다는 미국 스콧의 요청으로 통인시장으로 달려간 현장감 있는 구성이 쌍방향 소통을 살렸다. 특히 엽전을 사용해 한국의 퓨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방을 소개해 K-푸드를 홍보했고, 해외 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서울특별시 미래 유산으로 등재된 통인시장은 80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으로 조선시대 때 사용한 엽전을 활용해 도시락 가맹점의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 기름떡볶이부터 핫도그, 와인 치즈 닭꼬치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 프로그램 | 살어리랏다 | | |
|------|--------------|-----|-------|
| 방송일자 | 2022. 5. 14. | 시청률 | 0.027 |

【총 평】

‘첩첩산중에 진경이 산다.’편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서 자연이 베푸는 예술적 영감을 먹고 마시며 20년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경 작가의 삶을 현실감 있게 잘 담아냈다. 2020년 9월에는 고암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문자추상의 대가 고암 이응노의 삶과 예술을 소재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홍성 ‘이응노의 집’에서 전시도 열었다. 특히 사라져 가는 시골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서양화를 전공해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가 한국적인 것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는 이진경 작가는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친숙한 것,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 붓 끝에 담아내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구성 및 내용】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서 자연 속에 세들어 살고 있는 이진경 작가는 자연을 느끼고, 20년 세월이 묻어나는 작업실을 청소하고, 기르고 있는 유기견 이었던 깔리를 목욕시키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 2002년 경기도 포천 창수면의 작업실에 불이나 12년 동안의 작업이 한줌 재가 되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지금 살고 있는 내촌면으로 들어왔다. 내촌면에 새로운 작업실을 만들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인사동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쌈지길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며 인사동의 ‘쌈지길’, ‘쌈지 체’라고 불리는 글자체 ‘이진경 체’가 탄생했다.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동네 철물점의 간판 글씨를 써 주고 불이 난 작업실에서 가져온 책과 종이들을 이용해 작업하는 모습은 생활인으로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이다. 이 작가는 홍천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시골스러운 것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시골을 다니다 보면 옛날 간판 그대로 걸어놓고 있는 것들이 좋다. 트럭에 짐 실려 있는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통해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데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포천 불탄 집에서 가져 온 책이랑, 그림을 챙겨와 풀칠을 하며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 작가는 고암 이응노 화백을 작품으로 기리기 위해 제사와 천도제를 준비하고, 동백림 사건을 작업하기로 큰 틀을 잡고 ‘먼 먼 산’이란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겨울부터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이응노의 집’을 수시로 오갔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으로 상징되는 문자추상의 대가 고암 이응노의 삶을 위안하는 공간인 ‘이응노의 집’에서 열리는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이진경 작가 전시회는 이응노 작가의 넋을 기리는 의미가 있다. 이 작가는 “전시회를 통해 난 이렇게 느꼈는데 한 두 명이라도 괜찮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생각이 고되어도 작품을 하다 보면 저만치에서 힘이 올라온다는 이진경 작가는 모두 하늘과 달과 풀꽃들에게서 배운 힘이라고 말했다.

| 프로그램 | 여러분의 북마크 | | |
|------|--------------|-----|-------|
| 방송일자 | 2022. 5. 15. | 시청률 | 0.074 |

【총 평】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관련 정책의 변화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친북’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해 위기 수위를 고조시킨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고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진단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북한에 대해 담대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분석하며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등 남북관계의 새 바람과 희망적 요인을 전망했다.

‘이슈 텔링’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하여 정리했다. 1980년대 냉전이 끝나가면서 소련의 몰락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부자도 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성 및 내용】

‘친북’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았다. 최근 미니 SLBM 발사 등 새정부 취임 이후 2번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특히 북한의 미니 SLBM는 기존 북극성 계열 미사일이 너무 커 잠수한 탑재에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여 언제든 배치가 가능하게끔 했다. 다만 미사일 발사에 대한 관영매체의 홍보가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 실패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북한에 선 비핵화 압박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다만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국제관계의 보편성에 맞춰 남북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것 같다.

북한의 핵 개발 자체는 한국전쟁 때부터 결심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은 핵이란 무엇인지, 핵 억제 등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 한반도 비핵화 요구는 북한이 시작했는데, 한국전쟁 당시 남한은 북한에 비해 전력이 열세였고 이에 미국은 부족한 군사력에 대해 전술핵 사용을 고려했다. 북한은 전술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비핵화 요구를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핵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련의 핵우산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소련이 시작한 쿠바의 미사일 위기에 의해 미국은 핵전쟁을 경고했고 결국 소련이 한발 물러나는 것을 목격한 북한은 핵을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 개발 원료는 쉽게 얻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는 루머가 있다. 공식적인 우라늄 매장 세계 1위인 호주의 경우 170만 톤의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루머이긴 하지만 북한의 400만 톤의 매장량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슈 텔링’에서는 새정부 출범 즈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언급한 의도를 살펴보았다. 북한 근대사의 설명과 함께 공산주의 체제 태생과 특징에 대해 전해 북한체제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 | | |
|------|------------------|-----|-------|
| 프로그램 |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 | |
| 방송일자 | 2022. 5. 15. | 시청률 | 0.028 |

【총 평】

‘분쟁지역 전문PD 김영미’편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소구력이 되었다. 김영미 PD는 1999년 한 기사를 보고 무작정 동티모르를 방문한 사연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생생한 현지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전쟁을 강행하는 러시아의 실상과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주변국과 피난민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분쟁지역 사람들의 참상을 현실감 있게 표현했고, 취재하면서 어려웠던 과정을 사실적으로 전달해 시청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구성 및 내용】

전업주부에서 PD가 되고 1999년 동티모르 여대생 학살사건 기사를 보고 사진 속 동질감에 끌려 동티모르로 달려가면서 치열한 전쟁 현장을 취재하는 분쟁지역 전문PD가 된 이야기를 소개했다. 여성은 자동차 좌석에 앉지 못하고 트렁크에 타고 전신을 감싸는 부르카를 입어야 하는 등 최악의 여성 인권 현실이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를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위험 지역의 검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현지 코디네이터와 부부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현지 언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으로 위장하기도 한다며, 무엇보다 신발을 현지인과 같은 것으로 신고 있으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또한 현지인들을 취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슬람의 종교 이념인 ‘자비’를 강조하거나 “남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고 내 마음처럼 살피는 것이 알라의 뜻 이다”라는 코란의 한 구절을 읽어주며 설득한 사례도 들려주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재 중 일어난 총격전으로 동료였던 코디네이터 죽음을 목격하는 등 전쟁 속에서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출연자가 느끼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전달되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을 취재하고 돌아왔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고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사람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부부는 결혼 후 15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1년도 거주하지 못하고 폭격을 맞았으며, 아파트나 좋은 차 같은 재산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의 죽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을 공감할 수 있었다.

김영미 PD는 분쟁 지역을 먼저 달려가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바람은 보는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또 “현장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가 공감을 얻었다.

| 프로그램 |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 | |
|------|----------------|-----|-------|
| 방송일자 | 2022. 5. 15. | 시청률 | 0.023 |

【총 평】

‘동일방직 노조 파괴 공작사건’편에서는 당시 노조원들의 나체시위와 노조원에 대한 분노 투척 등 사회적 충격과 함께 사건 당시 노조원 활동의 배경과 시위 과정, 공권력의 노조 파괴 과정 등을 집중 조명했다. 노조가 왜 결성되고 어떻게 활동이 전개되고 이를 탄압한 공권력의 행태, 블랙리스트로 생존권까지 위협 당했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노조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되살린 구성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공권력의 위법성과 근로자의 인권유린 상황을 역사적 반면교사로 부각시킨 기획이 뛰어났다.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노조원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힌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등을 권고했다.

【구성 및 내용】

나체시위와 사람의 분노 투척 사건으로 알려진 동일방직 노조 수호 투쟁은 동일방직의 노조 설립 및 이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사건이다. 1970년대 대표적인 섬유회사였던 동일방직의 작업환경은 상당히 열악했다. 4계절 내내 열기로 가득했던 공장 내부는 기계 굉음에 호루라기로 소통했고 목화솜먼지로 인해 호흡도 어려웠다. 당시 동일방직의 구성원은 80%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이었으나 1946년부터 1972년까지 남성 노동자들이 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1972년 5월 여성 후보가 노조 위원장이 되면서 민주 노조로 탈바꿈했고 임금인상, 생리휴가, 기숙사 온수시설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어 YH무역 노조도 여성 지부장이 선출되면서 정보기관은 노조탄압과 와해공작을 실시했다. 이후 동일방직의 남성 노동자들은 별도의 노조위원회를 설립했고 경찰은 여성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를 연행했다.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던 여성 노동자들은 나체시위로 대응했지만 경찰은 연행했다. 1978년 2월 새로운 노조 대의원 선거 날 남성 노동자 일부가 사람의 분노를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 조합원들의 얼굴과 몸 등에 사람의 분노를 넣고 바르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1978년 3월 노동절 행사장에서 민주노조 파괴공작 사건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플래카드를 펼친 노동자들을 연행했고 연행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명동성당 등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정부당국과 동일방직 사건 수습대책위원회는 결국 노조를 정상화한다는 협상을 타결했다. 회사측은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 절대복종할 것 등을 포함한 사실상 노조탈퇴각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124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들 124명의 해고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직장의 취업도 어려워졌고 가족들은 감시대상에 올랐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복직 희망이 보였으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결국 민주노조는 다시 시작하지 못했다.

| 프로그램 |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 | |
|------|--------------|-----|-------|
| 방송일자 | 2022. 5. 15. | 시청률 | 0.003 |

【총 평】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편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가 선정한 환경교육 실천학교로 지정된 대구 팔달초등학교 선생님이 출연해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환경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팔달초등학교는 국어 시간엔 환경을 주제로 토론하고, 미술 시간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등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특히 환경교육과 기후행동 1.5℃ 낮추기 운동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학생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구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성 및 내용】

대구 팔달초등학교는 미래 시민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환경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교육하고자 교육부 선정한 환경교육 실천학교로 지정됐다. 특히 기후 행동과 1.5℃ 지키기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생한 환경교육과 함께 저탄소 생활 습관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 인정돼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었다. 환경 교육이 전혀 새로운 교과목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육, 예를 들면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교육 시키고 있다.

환경 교육을 실시한 이후 잔반을 남기는 학생에게 “남은 음식을 다 먹어라”가 아니라 ‘음식을 남기면 지구를 위해 좋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는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자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졌다. 환경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환경 수업을 통해서 텀블러 사용하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집에서도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노력했고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 진행된 환경 수업은 그 결과물을 인정받아 2021년 1학기 기후행동 스쿨챌린지 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상으로 화분 140여 개를 수여받아 이 화분으로 학교 숲을 조성했다. 2021년 11월에는 ‘이달의 뉴딜’로 선정됐는데 ‘지구의 온난화를 낮추기 위해, 지구를 살리기 위해 꾸준히 기후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구 팔달 초등학교가 대한민국이 더불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었다. 팔달초등학교 선생님은 한국판 뉴딜에 선정됐을 때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지구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한 기분”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이밖에 환경교육 실천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선생님과 제자들의 “같은 반이 돼서 좋아요” “선생님이 담임이라 감사해요”라는 진심이 담긴 평가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훈훈한 모습이 전달되었다.